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요약본

Mutual Perceptions of ASEAN and Korean Youth



윤진표

김기환

정범모

고우정

김유진



ASEAN-KOREA CENTRE

KISEAS KOREA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요약본

윤진표

김기환

정범모

고우정

김유진

목차

| | | |
|---|-------------------|----|
| | 발간사 | 4 |
| 1 | 인식 조사의 목적과 진행 | 7 |
| 2 | 아세안에 대한 한국 청년의 인식 | 11 |
| 3 | 한국에 대한 아세안 청년의 인식 | 21 |
| 4 | 인식 비교와 시사점 | 33 |
| 5 | 인식 조사의 의의 및 제언 | 39 |
| | 부록: 인포그래픽 | 41 |

발간사

2017년은 아세안 창설 50주년 및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를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아세안, 그리고 한-아세안 관계에 있어 기념비적인 해인 올해,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라는 의미 있는 주제의 결과물을 출판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정치·경제·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그 관계를 다져왔습니다. 1989년 부분대화관계 수립 이래 한국과 아세안은 1991년, 완전대화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서울에 한-아세안센터가 출범하였고, 2010년에는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주아세안대표부가 신설되었고, 2017년에는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이 개원하였습니다. 2017년 현재, 아세안은 한국의 제2의 교역파트너이자 해외투자 대상, 건설수주 시장이며, 우리 국민의 제1위 방문 지역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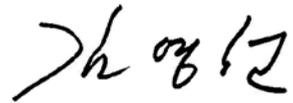
한-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지난 노력은 서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을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아는 것이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도 조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세안 양측 국민 간 인식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이에 한-아세안센터는 그 첫 단추로서,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를 펴내게 되었습니다.

금번 인식도 조사는 동남아 지역 연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온 한국동남아연구소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비록 한정된 시간과 인력 등 여러가지 제약이 있었지만, 향후 한-아세안 관계를 다지기 위한 의미 있고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협력 발전할 수 있는 상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현실을 새삼 발견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한-아세안 관계를 발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고무적인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인식수준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상생 협력을 지향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한-아세안 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식도 조사가 앞으로도 2~3년에 한 번씩 정기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아세안센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가 향후 전 국민 대상의 인식 조사로 확대되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이어지며, 나아가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조사를 수행·분석해주신 한국동남아연구소 윤진표 교수님 외 연구진, 그리고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1

인식 조사의 목적과 진행

조사의 목적

본 보고서는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이 상대를 보고 있는 인식의 정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물이다. 한국과 아세안이 여러 분야에서 우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지만 진정하고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양 국민 간 인식수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해법과 미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본 조사는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의 상호 인식을 파악하여 한국과 아세안 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한국의 대 아세안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아세안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수행되었다.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 결과를 이용해 한-아세안 관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교류협력 분야를 식별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간 상호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조사 방법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는 경험과 이미지, 관계 현황, 미래에 대한 전망 등 3가지 범주의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조사는 미래를 책임질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정량적 방법인 설문조사(survey)와 정성적 방법인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병행 실시하여 조사의 설명 수준을 높이고자 했다. 설문지는 폐쇄형 질문과 개방형 질문을 혼합한 25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응답자 구성

설문조사의 표본은 20~35세 이하 한국 청년 1,004명 및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유학생 320명으로 구성했다. 한국 청년은 남녀 각 50%, 수도권과 지방 각

50%씩 응답자를 구성했다. 320명의 아세안 유학생은 남자 93명, 여자 181명 (46명 미응답)이고, 인도네시아 69명, 말레이시아 52명, 베트남 37명, 필리핀 31명, 태국 18명, 라오스 18명, 캄보디아 17명, 브루나이 15명, 싱가포르 6명 (57명 미응답)이었다. 설문조사는 2017년 5~6월에 실시했고, 초점집단인터뷰는 한국 청년 13명, 아세안 유학생 15명을 선정하여 2017년 7~8월에 4차례 실시했다.

2

아세안에 대한 한국 청년의 인식

1. 아세안에 관한 경험과 인식

• 아세안 국가 방문경험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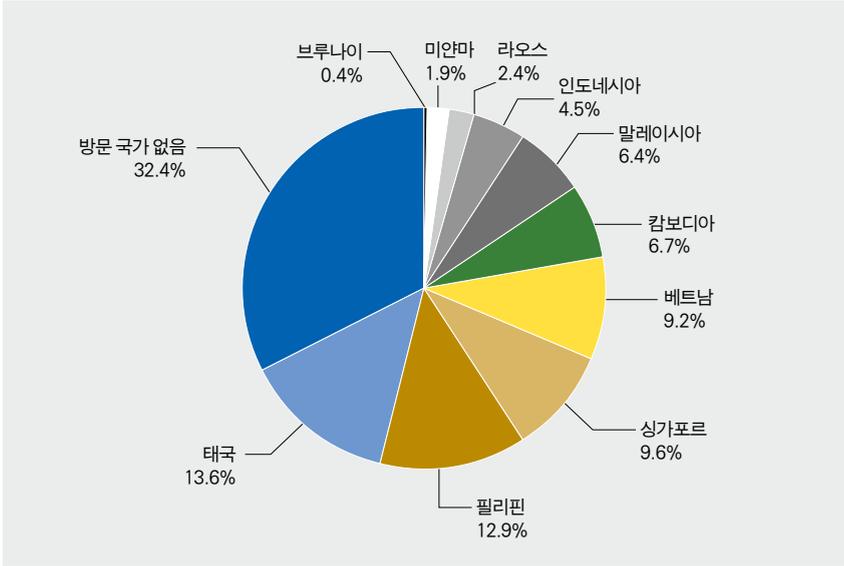
“아세안 국가 중 어느 나라를 방문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방문 국가 없음’이라는 응답이 32.4%에 불과했고, 나머지 67.6%의 응답자는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방문한 아세안 국가는 태국(13.6%), 필리핀(12.9%), 싱가포르(9.6%), 베트남(9.2%), 캄보디아(6.7%), 말레이시아(6.4%), 인도네시아(4.5%), 라오스(2.4%), 미얀마(1.9%), 브루나이(0.4%) 순이었다.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는 목적은 ‘관광 및 여행’(62.4%)이 압도적으로 1위였고, ‘자원봉사’(11.3%)가 2위, ‘어학연수’(8.7%)가 3위를 차지했다.

한국 청년들의 아세안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접근 방법, 음식에 대한 선호도, 국가에 대한 선호도 등을 질문했다. “아세안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는 인터넷(SNS)이 36.8%로 1위, 방송(TV/라디오)(25.4%), 주변인물(12.9%), 수업(11.0%) 순이었다. “아세안 국가 중 어느 나라의 음식을 좋아하는가?”라는 질문에 남성은 베트남(34.2%), 좋아하지 않음(24.8%), 태국(21.3%) 순으로, 여성은 베트남(40.5%), 좋아하지 않음(21.8%), 태국(21.1%) 순으로 응답했다. “아세안 국가 중 가장 호감이 가는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가 싱가포르를 1위로 선택했고, 태국이 2위, 베트남이 3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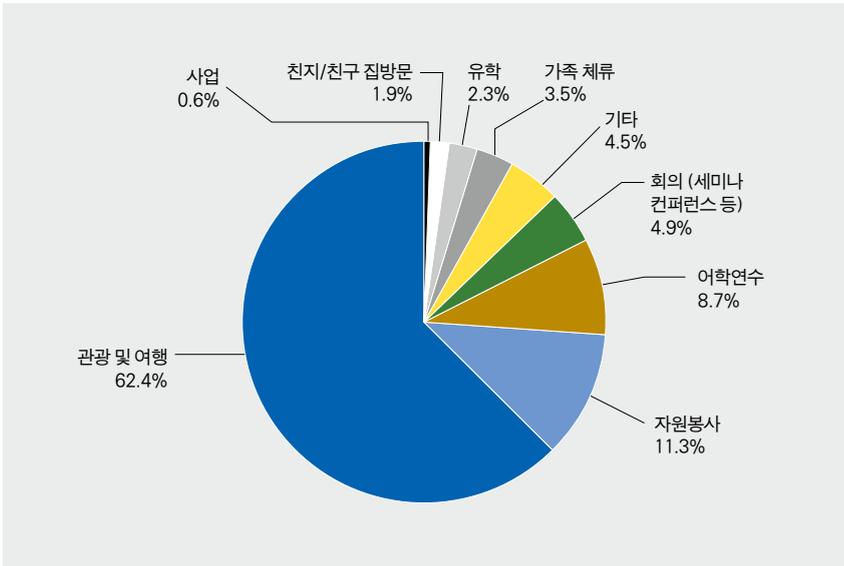
• 아세안 국가와 사람에 대한 이미지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아세안과 아세안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아세안에 대한 이미지는 ‘더위’, ‘개발도상국’, ‘휴양지’, ‘관광’, ‘여행’ 등이 많이 나왔다. 또한 ‘가난’, ‘후진국’, ‘빈곤’ 등 아세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답변도 많이 나왔다. 아세안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에서 접하는 아세안 사람의 이미지가 많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노동자’, ‘노동’, ‘결혼’ 등의 답변은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동남아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세안 사람에 대한 외적인 이미지는 ‘피부’,

아세안 국가 중 어느 나라를 방문하였는가?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목적은 무엇인가?



‘까망’, ‘까무잡잡’ 등으로 표현됐다. 아세안 사람의 성격에 대해 ‘친절’, ‘순박’, ‘여유’, ‘느긋’ 등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의 삶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산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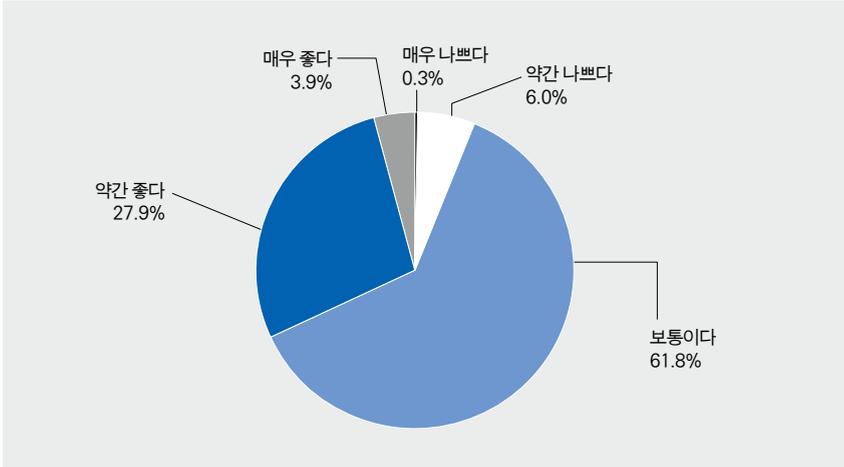
2.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

• 한국과 아세안의 현재 관계

현재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왔다. ‘보통이다’가 61.8%로 가장 많았지만 ‘약간 좋다’와 ‘매우 좋다’ 등 긍정적 답변이 31.8%로 부정적인 답변(6.3%)보다 훨씬 높았다. 이는 한국 청년들이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별에 따른 응답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남성 청년들보다 여성이 한-아세안 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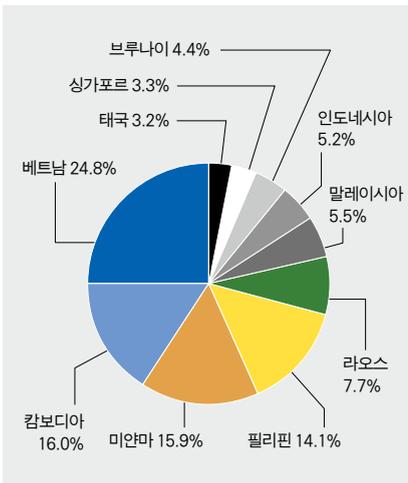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베트남이 24.8%로 1위였고, 캄보디아(16.0%), 미얀마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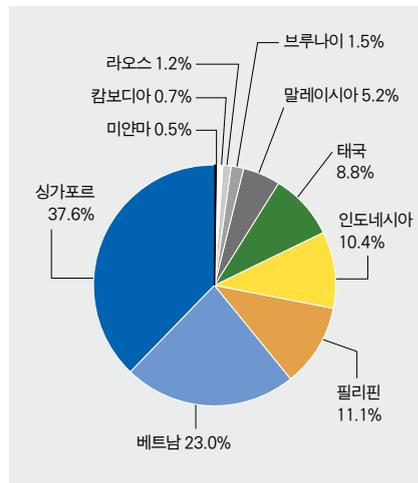


(15.9%), 필리핀(14.1%)이 뒤를 이었다. “아세안 국가 중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싱가포르가 37.6%로 1위, 뒤를 이어 베트남(23.0%), 필리핀(11.1%), 인도네시아(10.4%)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가장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할 아세안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한국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세안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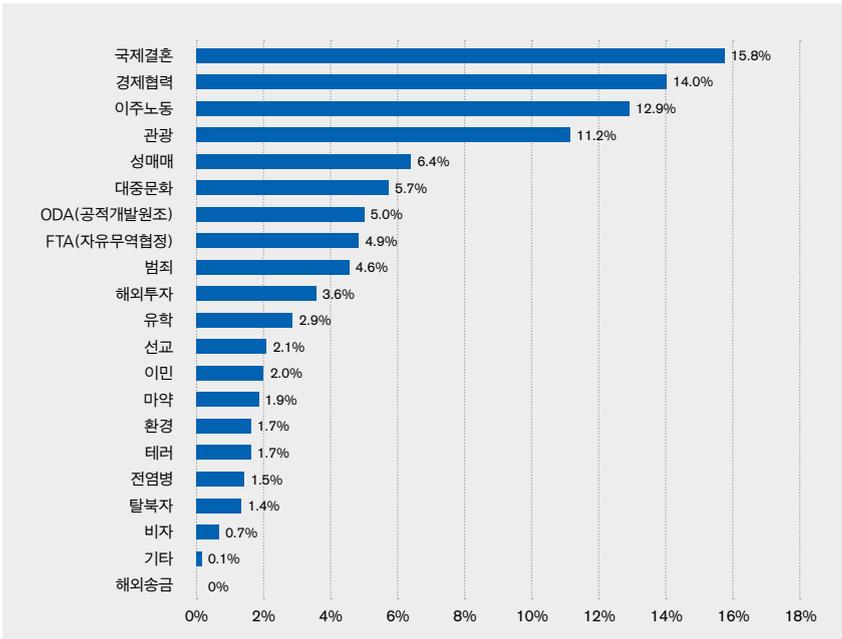


•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중요 이슈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국제결혼이 15.8%로 1위, 뒤를 이어 경제협력(14.0%), 이주노동(12.9%), 관광(11.2%) 순으로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 등이 높게 나온 것은 한국 청년들이 아세안을 물질적 거래의 상대가 아닌 사람 간의 만남이라는 인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아세안이 남북한 관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한국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42.9%), ‘그럴 것이다’(22.1%)로 답하여 남북한 관계에 대한 아세안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보고 있지 않았다. 아세안이 동아시아 외교에서 차지하는 경험과 역량을 고려하면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중재자 내지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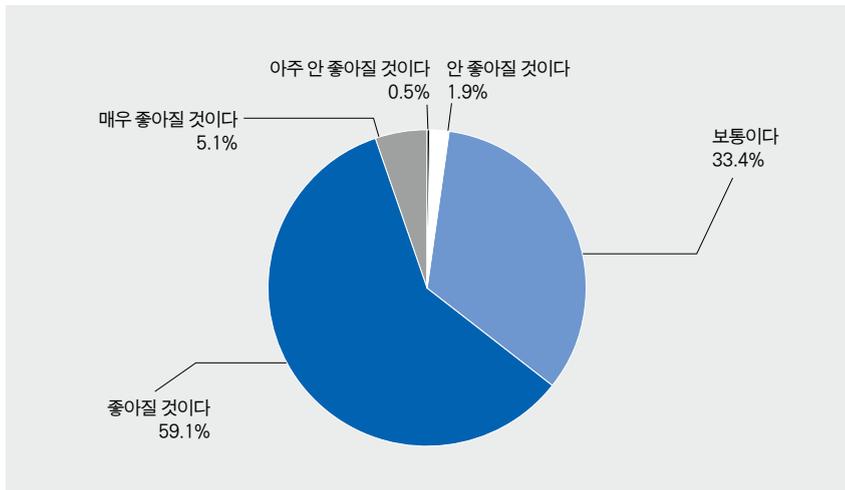
3.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에 대한 인식

•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미래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은 64.2%로 나타났고 부정적인 답변은 2.4%에 그쳤다. 한국 청년들은 앞으로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상호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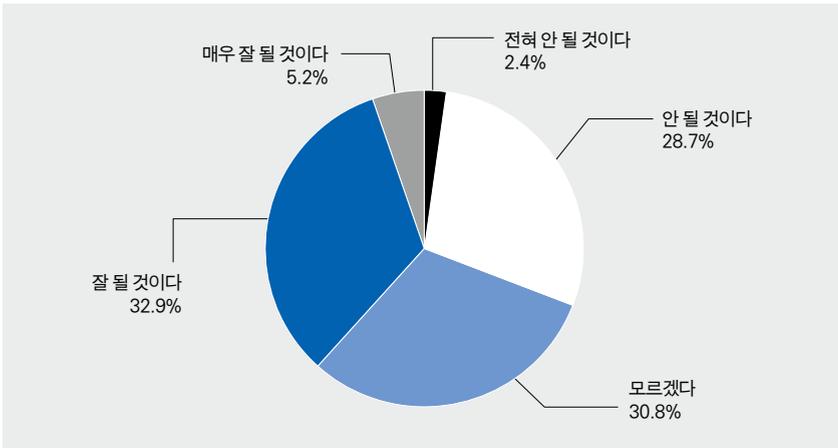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미래 방향에 대한 인식을 동남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형성 가능성 등의 문항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2015년도 말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이 55.1%로, 부정적 답변 11.2%보다 약 5배 이상 높게 나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모르겠다’가 40.3%, 긍정적인 답변이 36.4%, 부정적인 답변이 23.4%로 나왔다.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설문조사 결과 한국 청년들은 아세안 공동체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청년들은 지리적 근접성(36.9%)과 경제적 상호 연관성(36.0%)을 공동체 건설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했고, 부정적으로 답한 청년들은 역사·영토 분쟁(40.5%)과 경제발전 수준 차이(30.4%)를 공동체 건설의 걸림돌로 답했다. 흥미로운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남성의 긍정적 답변은 32.2%지만 여성은 39.6%로 7% 정도 높게 나타났다. 아세안의 ‘포스트 차이나(Post-China)’ 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38.1%)과 부정적 인식(31.1%)이 비슷하게 나왔다.

아세안이 포스트 차이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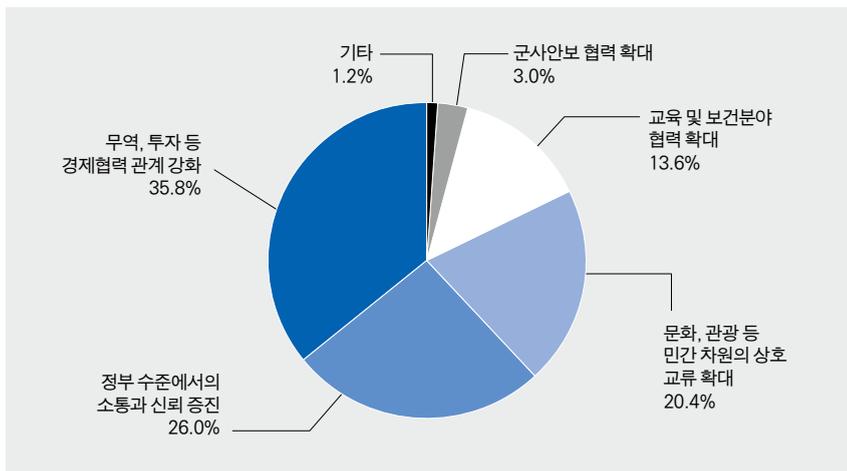
• 한국 정부의 역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발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35.8%가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우선으로 택했고, 정부 차원의 소통과 신뢰 증진(26.0%), 문화, 관광 등 민간 차원의 상호 교류 확대(20.4%), 교육과 보건분야 협력 확대(13.6%) 순으로 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정부가 경제협력 강화와 상호교류를 더욱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은 한국 청년의 동남아 진출 희망과도 연관되었다고 본다. 현재 한국과 아세안과의 중요 이슈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인 국제결혼, 이주노동, 관광 등은 모두 인적교류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에서 경제협력 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은 “동남아와 하고 있는 협력 혹은 관계 등을 언론에서 많이 노출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이나 청소년 교류, K-Beauty 등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나 분야를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한국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정부 차원의 공적분야와 함께 민간에 대한 지원도 지속된다면 한국 사람들이 동남아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는?



3

한국에 대한 아세안 청년의 인식

1. 한국에 관한 경험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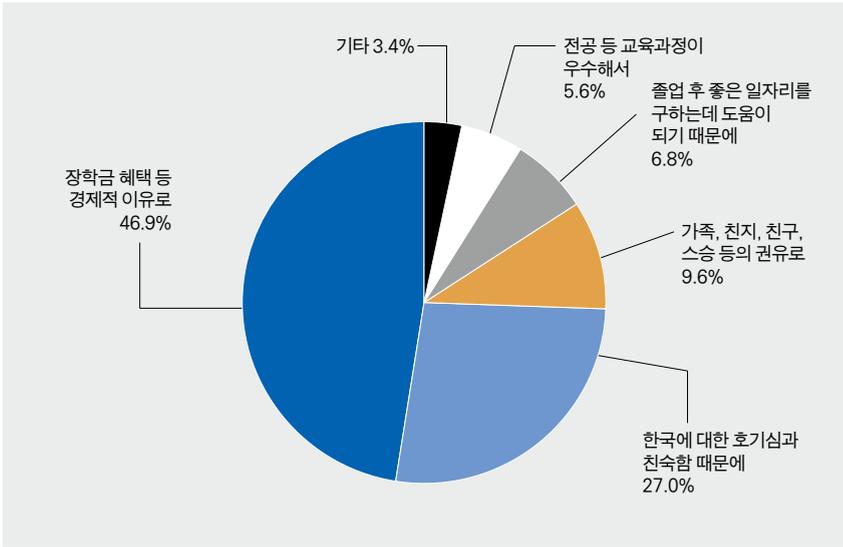
• 아세안 청년의 한국 유학 생활

아세안 유학생들의 한국에 관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에서의 유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와 한국 유학의 만족도를 물었다. “한국에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장학금 혜택 등 경제적 이유’가 46.9%로 1위, 뒤를 이어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27.0%), ‘가족, 친지, 친구, 스승 등의 권유’(9.6%), ‘졸업 후 좋은 일자리를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6.8%)의 순서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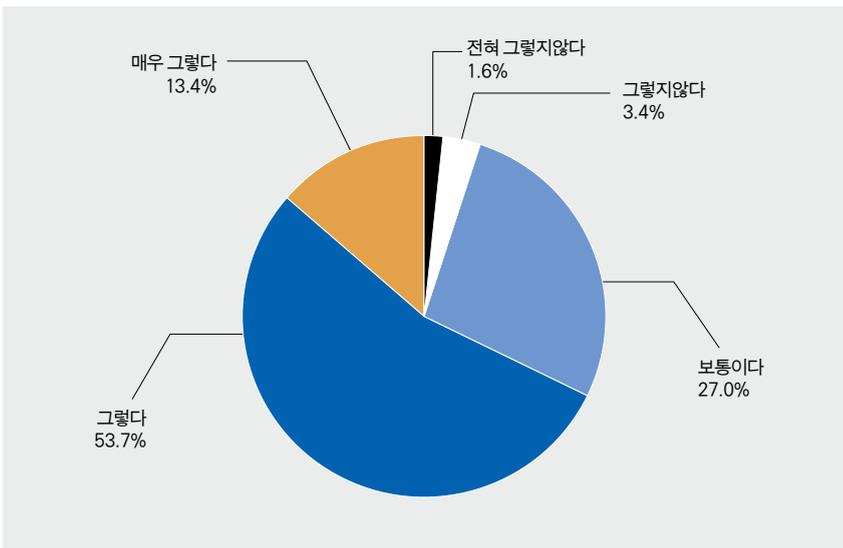
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성별과 국가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남녀 모두 ‘장학금 혜택 등 경제적 이유’가 1위였지만, 여성이 39.2%인데 비해 남성은 58.1%가 경제적 이유로 한국 유학을 선택하였다. 반면에 여성은 경제적 이유와 유사한 비율(35.9%)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 때문에’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브루나이(73.3%), 싱가포르(50.0%), 인도네시아(39.1%)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 등 긍정적 선호도가 한국 유학 선택의 1위 이유였다. 한국 유학 학비 해결은 ‘한국 정부 및 기관 장학금’이 30.7%로 1위, ‘학교 장학금’이 25.9%로 2위이다. 뒤를 이어 ‘본국 정부 및 기관 장학금’(15.9%), ‘부모님의 지원’(11.2%),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7.1%)의 순을 보였다.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가 53.7%, ‘매우 그렇다’가 13.4%로 긍정적인 평가가 67.1%였다. 부정적인 평가는 5%에 그쳐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유학생생활 중 어렵게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학업 관련’ 부분이 22.2%로 1위, 뒤를 이어 ‘외국에서의 적응 문제’(15.9%), ‘경제적인 문제’(14.7%), ‘이성교제’(9.4%), ‘심리적인 문제’(9.1%), ‘종교 활동’(7.8%) 등을 언급했다. 유학 이후 한국에서의 체류 계획은 ‘있다’가 41.6%, ‘없다’가 58.3%였다. 유학 이후 한국에서의 체류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job’과 ‘working’ 등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답을 많이 했다.

한국에서의 유학을 결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의 유학생생활에 만족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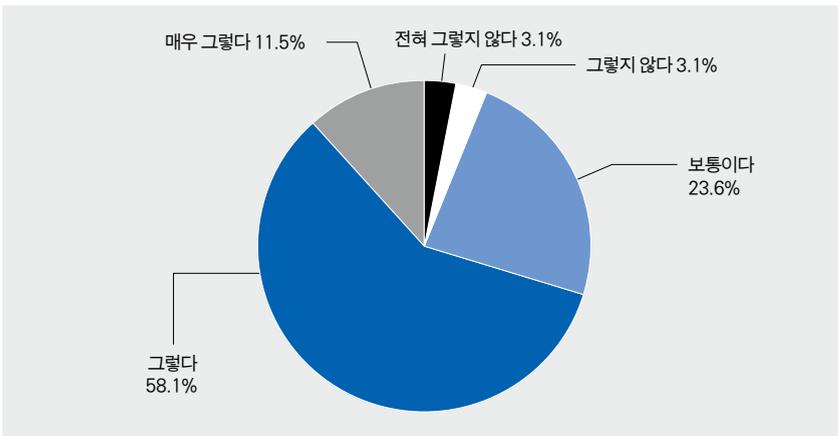


• 한국에 대한 인식

아세안 유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접근 방법, 한국에 대한 신뢰도 등을 물었다. “한국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는가?”라는 질문에 인터넷(SNS)이 46.1%로 1위, 뒤를 이어 방송(TV/라디오)(17.3%), 주변인물(12.6%), 홍보책자 및 도서(8.3%) 순으로 답했다.

“한국은 신뢰감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아세안 청년들은 69.6%가 ‘그렇다’, 6.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한국에 대한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 대한 신뢰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필리핀(87.1%), 브루나이(80.0%)가 평균 7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도네시아(71.0%), 캄보디아(70.6%), 베트남(70.3%)이 약 70%의 평균 수준을 보였으며, 싱가포르(66.7%), 태국(61.1%)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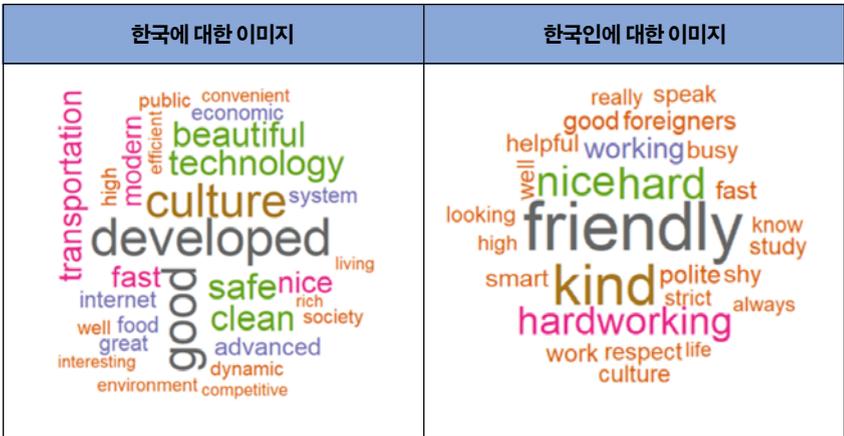
한국은 신뢰감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경제·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 사회·문화에 대한 이미지 등으로 구분되어 나타났다. ‘developed(발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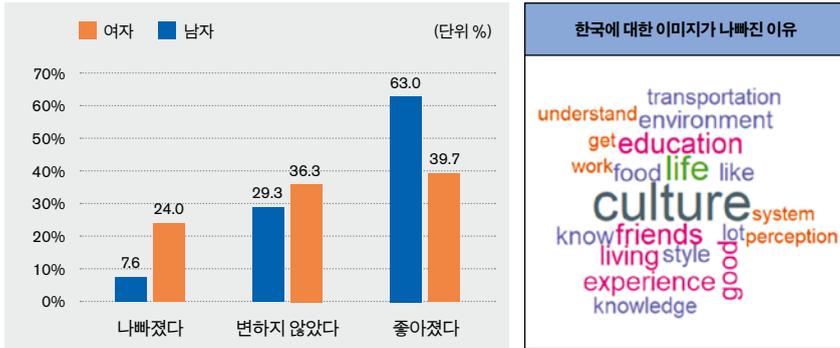
‘advanced(선진의)’, ‘economic(경제의)’, ‘modern(현대의)’, ‘technology(기술)’ 등은 한국의 앞선 경제·기술적 부문에 대한 이미지로 볼 수 있다. ‘safe(안전한)’, ‘clean(깨끗한)’, ‘environment(환경)’, ‘culture(문화)’, ‘food(음식)’ 등은 한국의 사회·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friendly(우호적인)’, ‘kind(친절한)’, ‘nice(좋은)’ 등 한국인이 친절하다고 생각하는 유학생들이 많았다. 반면에 한국인의 직업 환경이나 경직성에 대한 이미지로 ‘hard working(근면한)’, ‘busy(바쁜)’, ‘fast(빠른)’, ‘strict(엄격한)’ 등의 답변이 나왔다.



한국에 오기 전과 후를 비교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45.7%가 ‘좋아졌다’, 33.2%가 ‘변하지 않았다’, 19.6%가 ‘나빠졌다’라고 응답했다.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culture(문화)’로 대답했고, 이와 관련해 ‘life(삶)’, ‘living(생활)’, ‘environment(환경)’, ‘understand(이해)’ 등의 답도 있었다. ‘work(일)’, ‘education(교육)’, ‘friends(친구)’, ‘experience(경험)’ 등의 답변도 많이 나왔는데, 이는 유학생들이 겪는 학업이나 현지 친구들과의 어려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의 변화는 성별과 국가별로 응답의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63.0%는 ‘좋아졌다’, 7.6%는 ‘나빠졌다’고 응답한데 반해, 여성은 39.7%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과 비교해 들어온 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변했나?



‘좋아졌다’, 24.0%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유학생 남성들은 한국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경험하고 더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변화가 많은데 비해, 유학생 여성들은 현실적으로 경험한 차별적 시선 때문에 한국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에 대한 질문은 국가별로도 다른 결과가 나왔다. 라오스와 베트남, 캄보디아에서는 5% 정도만 ‘나빠졌다’를 선택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태국은 각각 30.9%, 27.8%가 ‘나빠졌다’를 선택했다.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역시 각각 17.6%, 13.3%, 12.9%가 ‘나빠졌다’고 답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유학생들에게는 출신국가와 한국의 현격한 경제사회 수준의 차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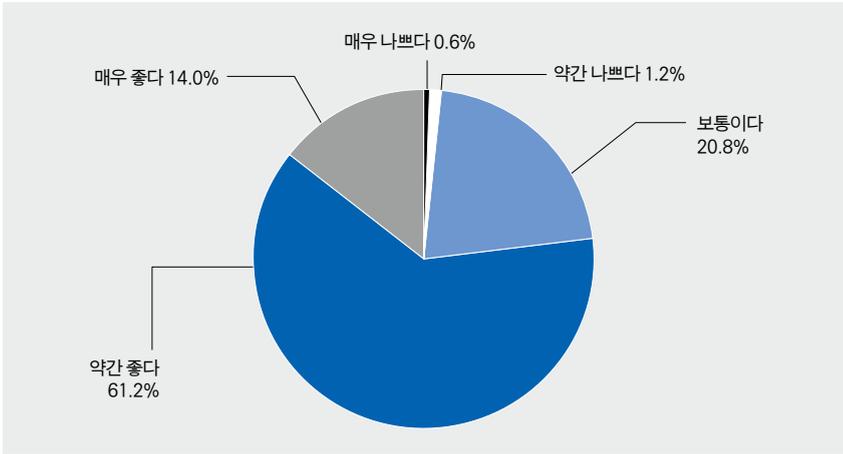
2.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

• 한국과 아세안의 현재 관계

현재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왔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약간 좋다’가 61.2%로 1위였고, ‘매우 좋다’도 14.0%가 나와 긍정적 답변이 75.2%로 부정적 답변 1.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에는 국가별로 응답 차이가 있었다. 캄보디아(88.2%), 말레이시아(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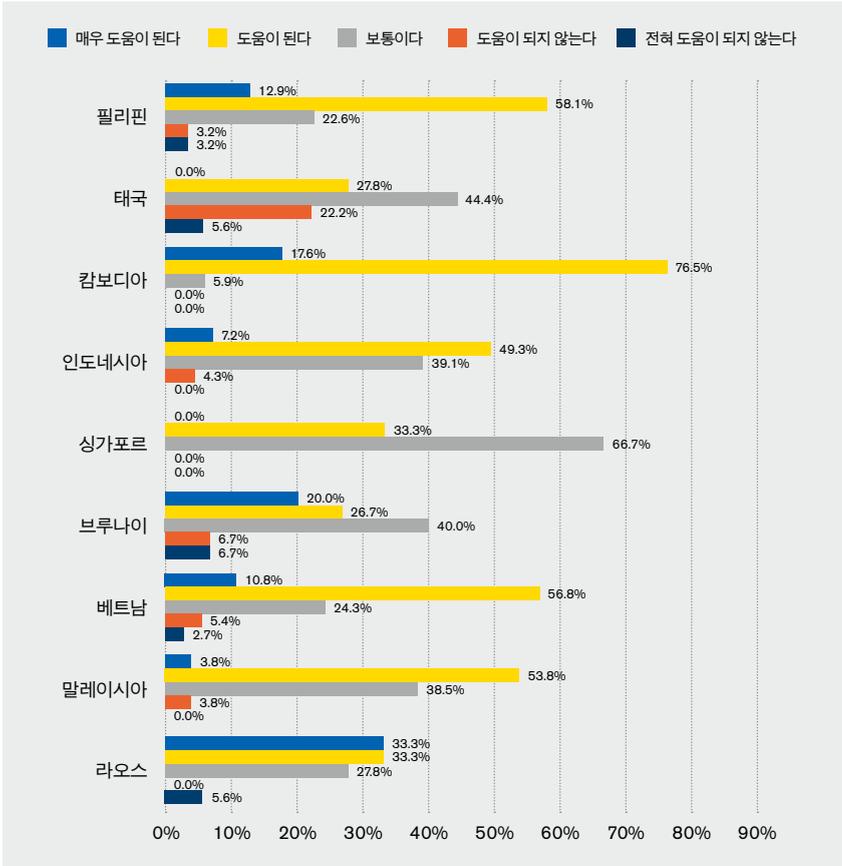
베트남(75.0%), 브루나이(73.3%), 태국(66.7%) 유학생 사이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라오스(11.2%)와 싱가포르(16.7%)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10% 이상 나왔다.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현재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이 본인의 출신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도움이 된다’가 49.1%로 1위, ‘보통이다’가 32.6%로 2위, ‘매우 도움이 된다’가 9.3%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 8.4%에 비해 매우 높게 나왔다. 본 질문 역시 국가별로 응답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훨씬 많이 나왔지만,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는 긍정적 답변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태국, 싱가포르, 브루나이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들 국가의 경제수준이 한국의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은 본인 출신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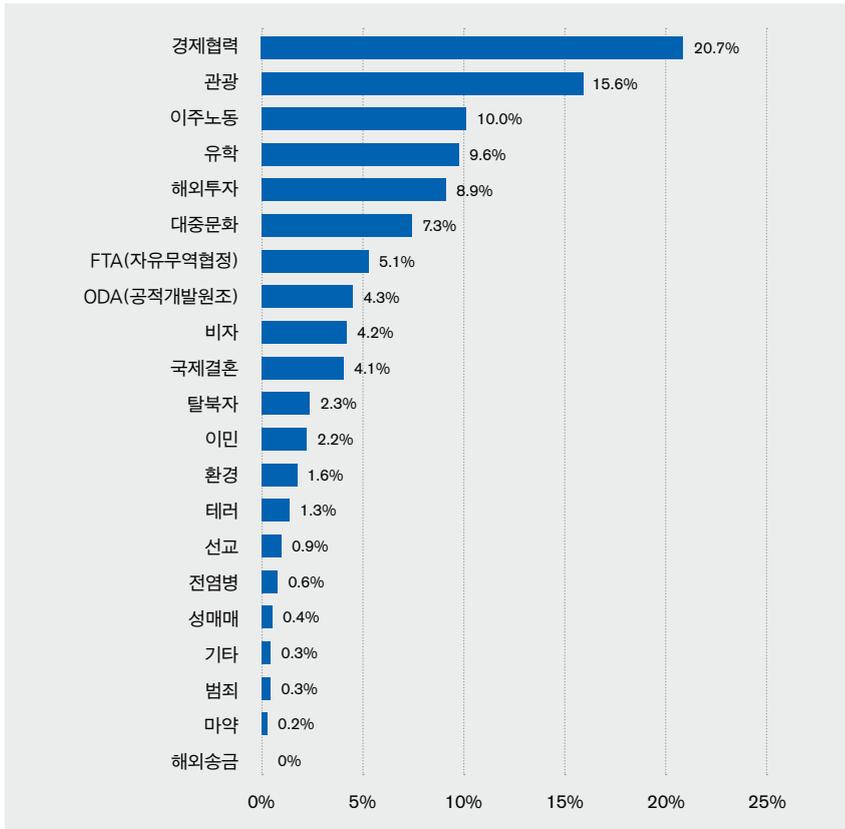


•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중요 이슈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경제협력이 20.7%로 1위로 가장 많이 나왔고, 관광(15.6%), 이주노동(10.0%), 유학(9.6%), 해외투자(8.9%), 대중문화(7.3%)가 뒤를 이었다. 경제협력, 이주노동, 해외투자 등은 모두 경제협력과 관련되고, 관광, 이주노동, 유학은 인적 교류와 연관된다.

“남북한 관계가 본인의 출신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보통이다’가 46.3%, ‘관계있다’가 26.4%로 나왔다. 싱가포르, 말레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가?



이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태국 유학생들의 40~50%가 ‘관계있다’라고 응답했고, 브루나이와 인도네시아 유학생들은 비교적 낮은 비율인 각 6.7%, 15.9%만 ‘관계있다’라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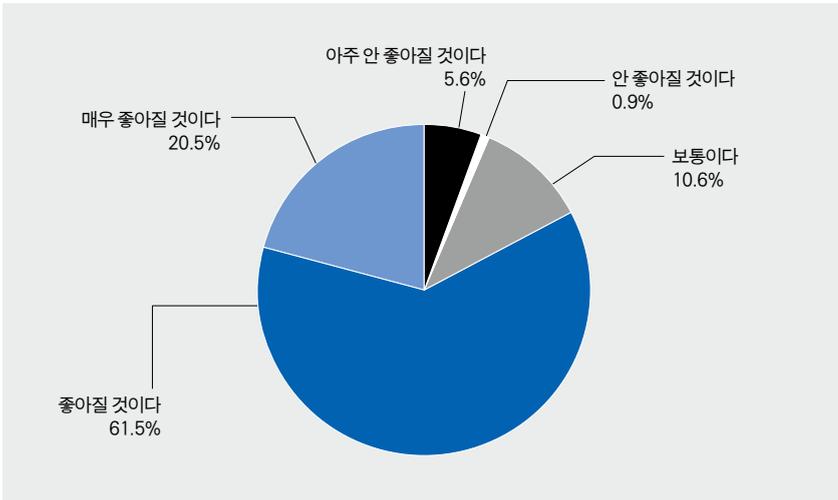
3.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에 대한 인식

•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미래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미래에 대한 질문에는 82.0%가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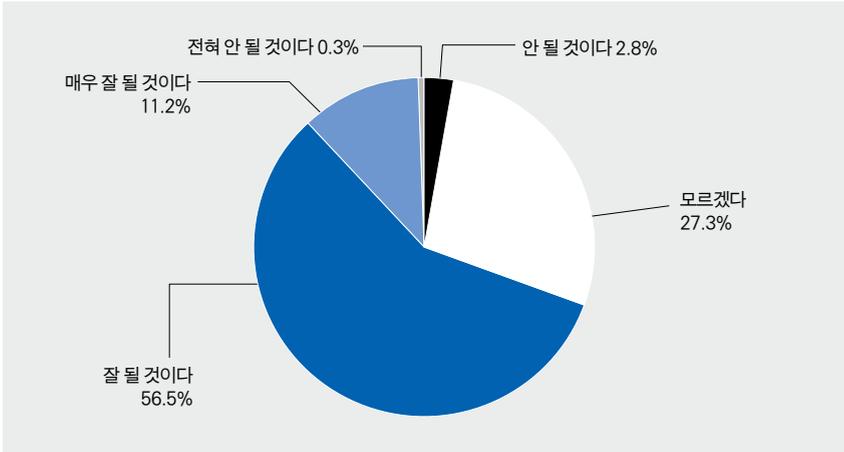
부정적인 답변은 6.5%에 그쳤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필리핀은 긍정적인 답변이 각각 93.4%, 94.1%, 93.6%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동남아 또는 동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 등의 문항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다. “2015년도에 출범한 아세안 공동체가 지역공동체로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67.7%로, 부정적 답변 3.1%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은 54.6%, 부정적인 답변은 14.6%였다. 이를 통해 아세안 유학생들은 아세안 공동체와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공동체 형성 가능성에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별 응답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유학생들은 각각 83.3%, 70.3%, 64.7%, 60.0%, 60.0%로 동아시아공동체 형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 태국은 50%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인도네시아 역시 26.1%로 부정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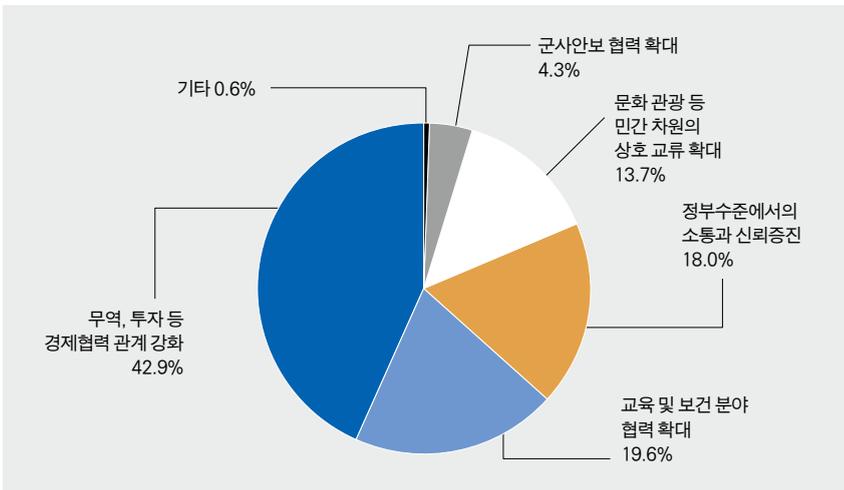
아세안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가?



• 한국과 아세안 정부의 역할

“한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은 무엇을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강화’가 42.9%로 1위, 그 다음으로는 ‘교육 및 보건 분야 협력 확대’(19.6%), ‘정부 수준에서의 소통과

한국과 아세안은 관계발전을 위해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신뢰 증진'(18.0%), '문화 관광 등 민간 차원의 상호교류 확대'(13.7%) 순으로 나타났다. 본 질문 역시 국가별 응답에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 유학생들은 '무역, 투자 등 경제협력 관계 강화'를 1위로 지목한 반면,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정부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을 각각 29.4%, 35.5%로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인도네시아도 '정부수준에서의 소통과 신뢰 증진'이 20.3%로 높게 나왔다.

한국정부에게 부탁하고 싶은 점을 주관식으로 질문했는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visa(비자)'라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아세안 유학생들이 한국에서의 유학을 위한 비자 문제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 'students(학생)', 'scholarship(장학금)', 'opportunities(기회)' 등 장학금과 교육 및 취업 기회 제공을 많이 언급했다.

4

인식 비교와 시사점

• 상호 인식

한국 청년들은 아세안을 휴양지와 더운 날씨, 아세안 사람들의 피부와 여유로움 등의 이미지와 빈곤과 개발도상국이라는 현상을 연관 지어 판단하고 있다. 국제 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라는 이미지로 아세안을 인식하고 있는 현상이 드러났는데,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 갖는 발전, 선진이라는 경제적 이미지와 안전, 청결이라는 사회적 이미지는 기술과 문화강국이라는 인상과 겹쳐진다. 자신의 출신국가와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인 장점이 한국에 대한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친절하다는 긍정적 이미지와 열심히 일하지만 급하게 서두른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다. 대체로 아세안 학생들은 역동적이고 도전적인 한국인을 교육의 결과로 보고 배우고 싶어 하고 있다. 한국에 들어오기 전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졌다고 절반 가까운 청년들이 답한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 인식의 통로

한국 청년들과 아세안 청년들 모두 정보를 얻고 인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받은 매체로 소셜미디어를 첫째로 꼽아 청년층에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 전달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한국 청년에게는 연예인이 출연한 아세안 방문 TV프로그램이, 아세안 청년에게는 K-Pop과 K-Drama 등 한류스타들이 출연하는 TV프로그램이 상대에 대한 인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연예인과 이들이 출연하는 TV의 영향력을 고려해, 알찬 내용이 전달될과 동시에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한국 청년의 아세안에 대한 인식

한국 청년들이 호감을 갖는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은

한국 국민소득의 두 배 가까운 소득을 가진 발전된 나라이며 부패 없고 깨끗한 나라라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과 베트남에게 보이는 호감도가 높은 이유는 관광지로서의 이미지와 지속적인 미디어 노출 등 교류와 정보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도네시아에 대한 호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교역과 투자 등에서의 실제적인 중요성에 비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정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이 라오스에 높은 호감을 보이는 데에는 TV프로그램의 영향이 결정적으로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청년들은 한국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의 순서로 꼽았고, 한국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는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순서로 꼽았다. 아세안의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 실제 한국이 경제지원 등의 도움을 가장 많이 주어야 할 나라를 청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가 들어간 것을 미루어 볼 때, 청년들이 교역과 투자 등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한국이 가장 많이 도와주어야 할 나라임과 동시에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라는 양면적 인식이 드러났다. 한국 청년들의 양면적 인식이 드러났다. 한국에 체류하는 베트남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보면서 베트남을 ‘가난한 나라’로 인식하는 반면, 한국 기업의 활발한 베트남 진출로 베트남을 시장, 경제협력의 대상 등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 아세안 청년의 한국에 대한 인식

한국에 유학 온 아세안 청년들이 유학을 결심하게 된 데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갖게 된 한국에 관한 개인적인 호기심과 장학금 등의 경제적 혜택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했다.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 정부와 대학의 장학금 확대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아세안 남성 청년들은 한국에 온 이유로 경제적 혜택을 첫째로 꼽았지만, 여성 청년들은 경제적 이유와 유사한 비율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친숙함을 이유로 꼽았다. 한국에 대해 갖는 전반적인 인상은 유학 생활의 만족도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아세안 학생들은 유학생회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는데, 어려운 점으로는 학업 진행과 적응 문제, 경제 문제 등을 꼽았다. 유학 이후 한국 체류와 귀국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직장과 월급 등 취업 관련 요소가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답해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아세안 청년들은 여러 상황에서 경험하는 직간접적인 차별도 언급했다. 아세안 남성 청년들을 이주노동자의 연장선에서, 여성 청년들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장선에서 보는 극히 일부 한국인의 치우쳐진 생각이 아세안 청년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심층 인터뷰 결과 대학교의 영어 강좌가 부족한 점과 장학금 지원 중단, 기숙사와 식당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을 무시당한다는 느낌으로 갖고 있었다. 한국 미디어에 종종 나타나는 동남아에 대한 편견이 현실에서 차별적 시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아세안 관계 인식

한국 청년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평가가 부정적 평가보다 5배 이상 높게 나왔다. 한국 여성 청년들이 한국 남성 청년들보다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아세안이 한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지역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높게 나왔다. 한국 청년들이 한-아세안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평가임과 동시에,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원하는 바람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대해 한국 청년들에 비해 두 배 이상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이 출신국가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나라인가에 대해서도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아세안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기 때문에 한-아세안 관계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다.

한국 청년들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 국제결혼, 경제협력, 이주노동, 관광 순으로 답했다. 국제결혼, 이주노동 등을 중요 이슈로 답한 것은 한국 청년들이 동남아를 인적 교류의 대상지역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런 결과는 경제협력 같은 물적 교류 못지않게 한국 청년들에게는 동남아가 사람과 사람의 접촉의 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보여준다. 아세안 청년들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슈를 묻는 질문에 경제협력, 관광, 이주노동, 유학, 해외투자, 대중문화 순으로 답했다. 경제협력, 이주노동, 해외투자 등은 모두 경제분야와 관련이 있고, 관광, 이주노동, 유학은 인적교류와 관련된다. 이로써 한국 청년과 아세안 청년 모두에게 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인식됨을 확인할 수 있다.

•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 전망

절반 이상의 한국 청년들이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부정적인 답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는 현재의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한국 청년들의 한국과 아세안의 미래를 매우 발전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세안 청년들은 한-아세안 관계의 미래를 한국 청년들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출신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동남아 유학생들은 한국과 아세안 관계가 발전할 거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런 청년들의 인식은 한국과 아세안 모두에게 매우 희망적인 신호이다.

한국 청년들은 향후 한국과 아세안이 가장 노력해야 할 분야로 무역과 투자 등 경제협력을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정부 차원의 소통과 신뢰 증진, 민간 차원의 문화 및 관광분야 협력, 교육과 보건 분야 협력 순으로 답했다. 아세안 청년들 역시 경제협력 강화를 첫째로 꼽았고, 이후 순서도 거의 동일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경제협력 강화 및 교육과 문화 분야 교류 확대를 위해 특별히 노력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 청년들이 인적 교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요구한 것은 청년들의 아세안 진출 희망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인적 교류 관련 제도적 기반과 지원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 아세안 학생들은 한국 정부에 비자 문제 해결과 정부 장학금, 교육 기회 확대를 많이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인식 조사의 의의 및 제언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는 상대에 대한 생각을 아는 것이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초석이라고 판단하여 수행되었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병행하여 많은 사실을 발견하고 확인하였다. 전반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고, 협력 및 발전을 할 수 있는 좋은 상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아세안에 대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편견과 아세안 청년들이 한국에서 겪는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면도 발견되었다. 하지만 이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양측 청년들에게 넘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한-아세안 관계를 건강하고 발전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이번 조사가 갖는 가장 큰 의의일 것이다.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되었다. 인식 조사에서 제기된 과제를 식별하고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정부 차원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과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인식 수준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인식 조사를 바탕으로 노력한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 상생 협력을 지향하는 진정한 파트너로서 한국과 아세안은 상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향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2~3년에 한 번씩 한국 국민과 아세안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 인식 조사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축적된 인식 조사 결과는 정확한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상호 인식 조사는 중요 사업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수준을 심층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접근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식 조사는 한국과 아세안 관계를 진정하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나감에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부록

인포그래픽



한국과 아세안 청년들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도 조사

표본
대상



한국 청년
(대학생, 대학원생)
1,004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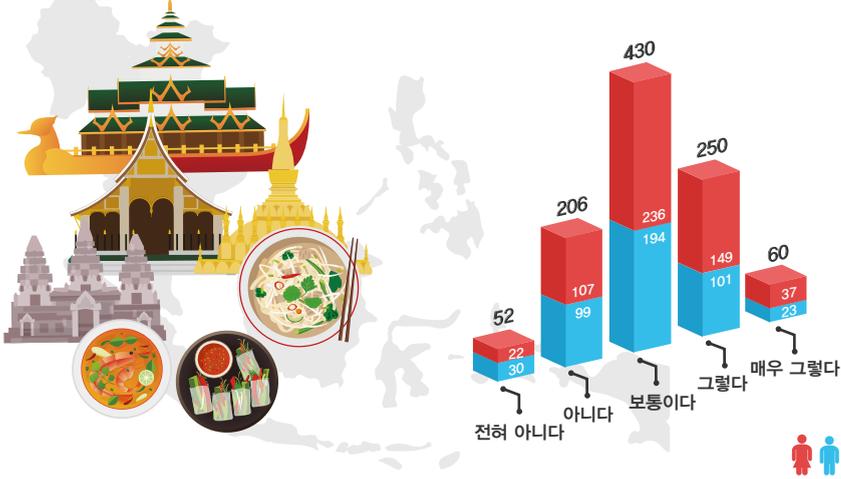
한국으로 유학 온
아세안 학생
320명



50%

한국 청년들의 인식

Q. 아세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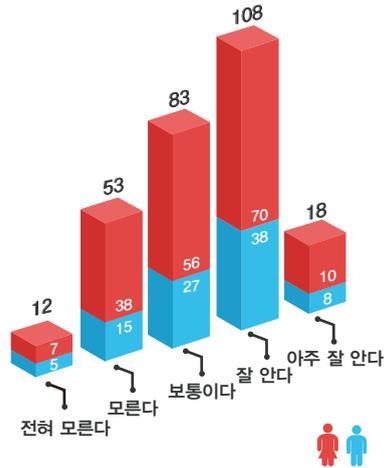


Q. 아세안 10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은?



아세안 청년들의 인식

Q. 한국인이 아세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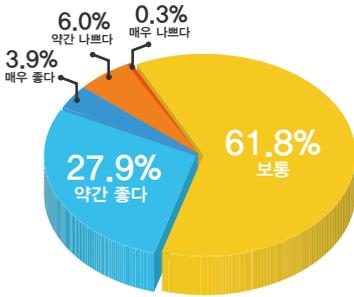
Q. 한국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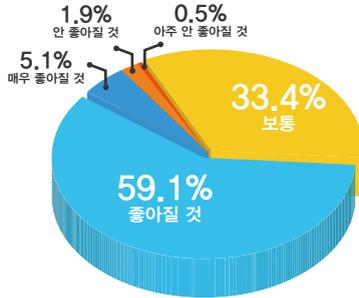
한국 청년들의 인식

Q.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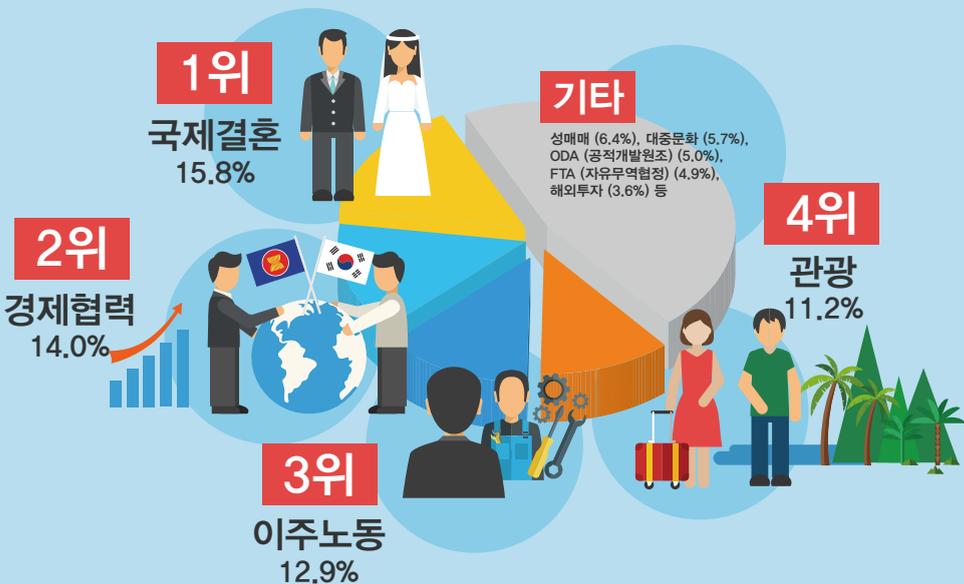
현재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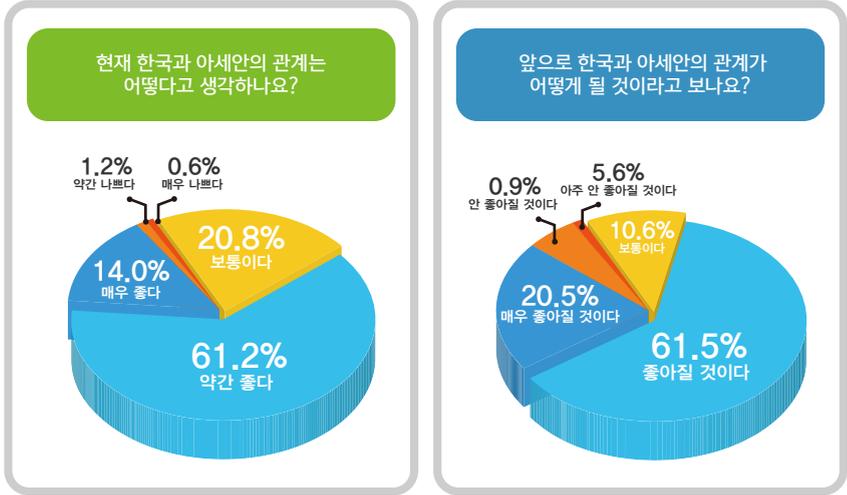


Q.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현재 중요한 이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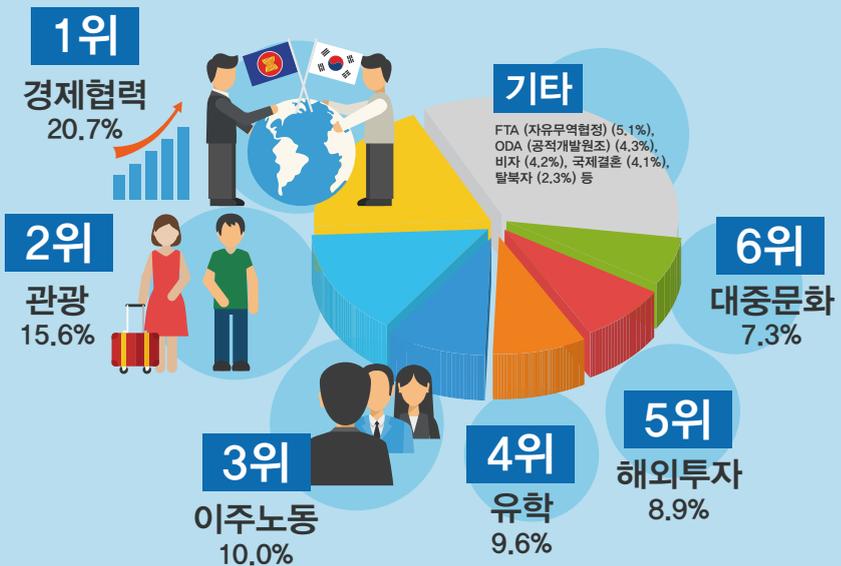


아세안 청년들의 인식

Q.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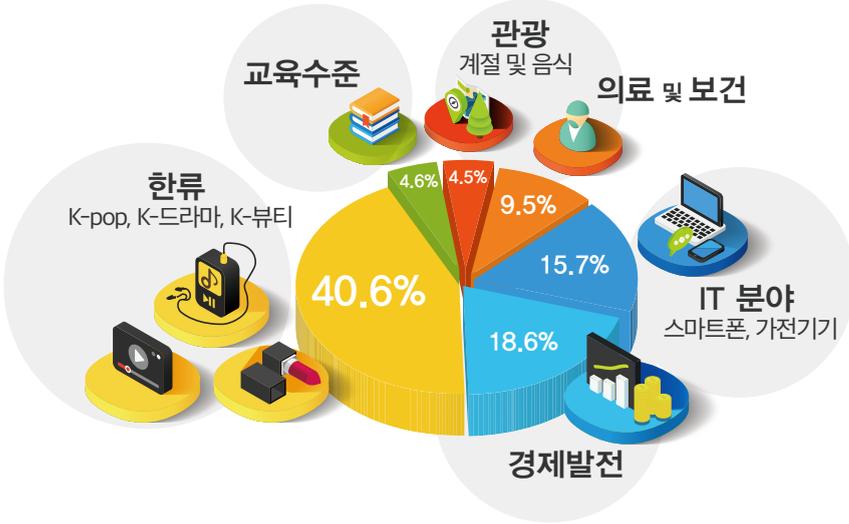


Q. 한국과 아세안 관계에서 중요한 이슈는?



한국 청년들의 인식

Q. 한국의 어떤 분야가 아세안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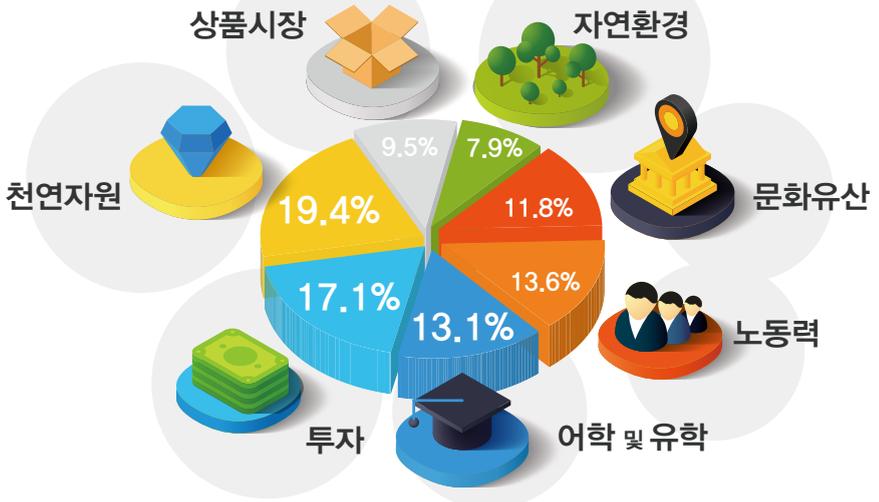


Q. 한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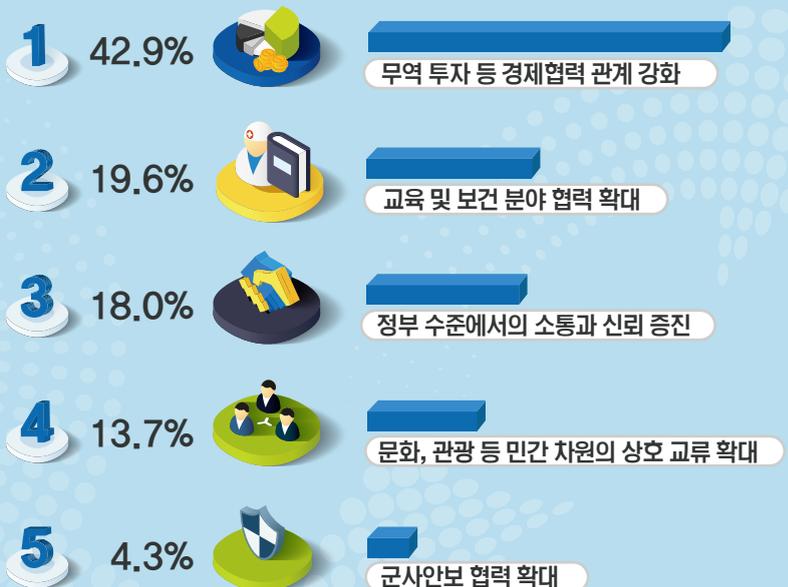


아세안 청년들의 인식

Q. 아세안의 어떤 분야가 한국에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요?



Q. 한국과 아세안 관계 발전을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할까요?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요약본

| | |
|------|-------------------------------------|
| 펴낸날 | 2017년 11월 30일 |
| 지은이 | 한국동남아연구소 (윤진표, 김기환, 정범모, 고우정, 김유진) |
| 펴낸곳 | 한-아세안센터 |
| 디자인 | 고투워크 |
| 교정 | 한-아세안센터 정보자료국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8층) |
| 전화 | 02-2287-1143 |
| 팩스 | 02-2287-1160 |
| 이메일 | info@aseankorea.org |
| 홈페이지 | www.aseankorea.org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글이나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아세안센터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아세안센터

ASEAN-KOREA CENTRE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기구입니다. 한-아세안센터는 한·아세안 대화관계 20주년을 맞은 2009년 3월 13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The ASEAN-Korea Centre is an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 mandated to promote economic and socio-cultural cooperation between the ASEAN Member States and Korea. It was officially inaugurated on 13 March 2009, the year that marked the 20th Anniversary of the Dialogue Partnership between ASEAN and Korea.

www.aseankorea.org



Visit Asean@50
GOLDEN CELEBRATION 2017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처럼 나라와 나라, 지역과 지역 사이에도 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아는 것이 상호 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일 것이다. 이에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적이고 진정한 파트너십을 위해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 조사」를 펴낸다.

비매품 / 무료



ISBN 979-11-88409-05-1
ISBN 979-11-88409-04-4 (세트)